

‘2조4,454억 → 8,753억’ SOC 예산 3분의 1로 급감

(2016년)

(2019년)

도내 건설업 수주난 위기

2016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조4,454억원에 달했던 국도와 철도 등 도내 주요 SOC 사업비가 올해는 8,753억원에 그치는 등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. 정부기관의 SOC 예산 급감은 도내 건설업체들의 수주난으로 이어지며 지역 경기 침체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.

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올해 확보한 사업비는 4,282억원이다. 원

올림픽·교통망 개발호재 마감

원주국토청 3년 만에 반토막 철도시설공단도 26.7% 수준

국도건설 84건 건의도 안갯속

주국토청의 사업비는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가 한창이던 2016년 7,729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7년 6,039억원, 2018년 5,496억원으로 줄었다. 올해 원주국토청의 사업비는 2016년의 55.4% 수준으로

사실상 반 토막에 불과하다.

더 큰 문제는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간선도로망 구축이 절실하지만 관련 예산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.

원주국토청의 2017년 국도 건설 예산은 3,008억원이었지만 2018년 1,301억원으로 56.7% 감소한 데 이어 올해는 718억원으로 축소됐다. 2017년의 23.9% 수준에 불과하다. 원주국토청은 도내 국도건설 사업을 늘리기 위해 ‘제5차 국도·국지도 5개년 계획’ 대상사업으로

국도 5호선 원주 신림~제천 봉양 도로건설공사 등 84건을 건의했지만 수용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.

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. 공단의 2016년 전체 사업비는 원주~강릉 KTX 개설로 1조6,725억원에 달했지만 2017년 1조2,695억원, 2018년 4,860억원, 올해는 4,471억원으로 줄었다. 올해 사업비는 2016년의 26.7%밖에 되지 않는다.

정부 SOC 예산이 줄어들며 도내 건설업체의 수주난은 악화일로다.

동북지방통계청과 대한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올해 1·4분기 회원 건설사들의 건설수주액은 2,120억원으로 2018년 2,621억원보다 501억원(19%) 감소했다. 수주 건수도 277건으로 13.4% 줄었다. 오인철

도건설협회 회장은 “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정부가 주도하는 도내 SOC 사업 예산이 급감하며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”며 “지역 균형발전과 경기회복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SOC사업을 늘려야 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원주=이명우기자



도의회 경건위 의정자문단 간담회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(위원장: 김수철)는 2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의정자문단 간담회를 열고 강원도의 4차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.

【 2019.5.21(화) 강원도민일보 】



도의회 4차산업 발전 방향 논의 도의회 경제건설
위원회 (위원장 김수철)는 2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
의정자문단 간담회를 갖고 강원도 4차산업 발전
방향을 논의했다.